

교사용 25~36개월 영아 행복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민선희, 김용숙*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25~36 Months Old Infant's Happiness Scale for Teachers

Sun-Hee Min, Young-Sook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25~36개월 영아 행복감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영아 행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선행 측정도구 분석내용과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을 통해 영아 행복감 구성요인과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의 타당화를 위해 D지역 25~36개월 영아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 행복감 척도의 구성요인과 문항은 문제 행동(4), 몰입을 통한 성취(4), 친구와의 관계(4), 교사와의 관계(4), 물리적 환경(3), 긍정정서(4), 부정정서(3), 건강(3)의 총 8개 구성요인과 29문항이다. 둘째, 영아 행복감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문항 적합도 CFI=0.89, TLI=0.88, RMR=0.05로 적합하였으며,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공인타당도는 기존에 개발된 측정도구의 구성요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는 0.71-0.89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 행복감 척도는 영아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아 행복감 척도는 영아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효과를 검증해주는 주요 검사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of 25~36 months old infant's happiness and to develop a scale to measure infant happiness. The subjects were 250 infants aged 25~36 month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onents and items of infant's happiness scale selected through the literature, the previous measurement tool,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 were 8 components and 29 items. The items were composed of 4 items of problem behavior, 4 items of achievement through immersion, 4 items of relationship with friends, 4 items of relationship with teacher, 3 items of physical environment, 4 items of positive emotion, 3 items of negative emotion, and 3 items of health. Second, as a result of validation of validity for infant's happiness scale, the item fit was confirmed with CFI=0.89, TLI=0.88, and RMR=0.05. Also, the construct validity was confirmed with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The concurrent validit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omponents of the previously developed measurement tools, and the reliability was appeared with 0.71-0.89. The infant's happiness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ensured reliability and validity as a measurement to measure infant happiness. Therefore, this scale is expected to be used as a major test tool to develop and verify a program for promoting infant happiness.

Keywords : Infant happiness, Problem behavior, Achievement through commitment, Relationship with friends, Relationship with teacher, Physical environment,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Health

본 논문은 2017년 중부대학교 대학원 민선희 박사학위논문 의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 Youngsook Kim(Joongbu Univ.)

Tel: +82-10-2376-0058 email: saysv2@hanmail.net

Received October 29, 2018

Revised (1st December 3, 2018, 2nd December 12, 2018, 3rd January 8, 2019)

Accepted February 1,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1. 서론

의식주 해결을 위해 경제활동에 열중했던 기성세대의 노력 덕분에, 현대인은 경제적 풍요로움 안에서 행복한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지게 되었다. ‘한번 뿐인 인생, 즐기며 행복하게 살자’라는 의미의 신조어인 율로와 휘게, 탕진잼, 사토리 등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점점 하락하며[1], 피폐해지는 정서로 인한 삶의 방향과 의미 상실, 부정적 감정 표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인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행복 관련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Seligman[2]은 긍정심리학을 창시하여 개인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가진 강점을 강화시켜준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였으며, Diener & Diener[3]는 이상적인 행복의 조건을 83%의 행복과 17%의 슬픔의 균형이라고 이야기하며 ‘사실 그대로의 행복’을 주장하였다. 뇌 전문가인 김봉년[4]은 인간의 일생 중 가장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시기부터 종합적인 접근방식의 교육을 통해 ‘행복의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행복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어린시기부터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행복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5-7]. 이러한 연구들은 행복이 어릴 때부터의 교육에 의해 습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이루어진 초기 행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경숙[8]은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은주[9]는 행복한 아이는 긍정적이며 자신감 넘치고,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고 말하였다. 이는 행복한 아이가 행복하지 못한 아이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린시기부터 행복 교육을 실시함을 주장한 것이다. Seligman[10] 또한 행복감 증진을 위한 지식과 기술은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어린시기부터의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의 필수적 요소를 획득하고 습관화시킴으로써, 행복감 삶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

라 인간이 태어난 후 초기 3년은 인간발달의 모든 영역 즉,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으므로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교육이 요구된다. 이 3년간의 경험들은 영아의 현재와 미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영아기 행복 교육은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11].

이렇듯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아기 행복감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25~36개월 영아 발달은 인간의 행복감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25~36개월 영아의 발달적 특징을 살펴보면,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능력이 빠르게 성장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2]. 이 시기 영아 발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타인과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영아가 탈중심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친구의 행동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며, 친구와의 관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모하고 사회성이 발달하며 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기 시작한다[13]. 30개월 이후가 되면 규칙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규칙을 이해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듯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25~36개월 영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인간 전 생애의 행복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행복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아기 행복에 관련된 이론적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영아기 발달특성에 맞는 행복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영아 행복 연구는 2008년 김도란[14]의 연구를 시작으로 [15-16]의 연구가 있다. 이처럼 영아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던 이유에 대해 최은아[17]는 영아가 발달의 연속선상에 있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아직 미숙한 존재로 인식되며,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종속적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회성이 형성되는 영아기의 특성에 대한 성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현재 영아의 행복감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때문에 영아를 대상으로 한 행복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도

구가 없는 것 또한 영아기 행복 연구가 부족했던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영아 행복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아의 행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 보육현장의 영아 행복 교육의 출발은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므로 영아가 행복감을 느낄 때의 반응과 표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행복의 필요성 및 중요성과 관련된 행복교육의 문헌을 바탕으로, 25~36개월 영아 행복감의 구성요인을 분석하고 영아 행복감 척도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영아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활성화되어 보육현장에서의 영아 행복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영아 행복감 척도의 구성요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영아 행복감 척도의 타당도(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신뢰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영아 행복감 척도의 개발

영아 행복감 척도 개발을 위해 영아 행복 연구동향을 분석한 후 측정도구 개발의 목적 및 방향을 첫째, 유아교육 이론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현장 영아교사들의 협의를 거쳐 영아 발달 특성에 따른 행복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여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영아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척도이므로 쉽고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헌에서 나타난 영유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기질,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자아탄력성, 정서지능, 보육기관적응, 리더십, 문제행동, 사회적 지지, 도덕적 판단력)과 기존의 유아 행복감 척도에 나타난 구성요인(인적환경, 참여 및 성취, 인지 및 성취, 몰입, 긍정정서, 부정정서, 대인관계, 놀이참여, 건강), 마지막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영아 행복감 구성요인(건강, 환경, 사회성, 정서, 몰입을 통한 성취)을 함께 분석하여 추출된 구성요인들을 가지고 영아의 수준에 맞는 유아교육 전문가 5인과 상의하여 수정·보완해 문제행동, 몰입을 통한 성취,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물리적 환경, 긍정정서, 부정정서, 건강의 8개 요인

이 최종 구성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구성요인에 의거해 척도의 내용 및 준거를 정립하였다.

영아 행복감 척도의 예비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기존의 측정도구[9, 14, 27, 33-35]에서 사용된 64문항과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을 통해 추출된 45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사용하였으며, 5차에 걸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3차 내용타당도 는 전문가와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 문항의 적합성, 현장에서의 관찰 용이성, 현장 적용성, 응답의 용이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73문항이 추출되었다. 4~5차 내용타당도 검증은 영아 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4문항을 삭제하여 총 29문항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영아 행복감 척도 29문항의 타당화를 위해 25~36개월 영아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2.2 영아 행복감 척도의 타당화 검증

2.2.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선정된 29문항의 영아 행복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구인타당도(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공인타당도 검증 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대전 지역 어린이집 60곳을 임의표집하였으며, 각 기관의 25~36개월 영아의 담임교사 28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영아 행복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160명을 무선표집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할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측정도구’와 ‘행복 측정도구’를 함께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와 회수에 소요된 기간은 2017년 9월 18일~10월 13일까지이다. ‘영아 행복감 척도’의 회수된 설문지는 261부로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250부의 설문지가 영아 행복감 척도의 선정과 타당도 검증에 사용되었다. 또한 ‘영아 행복 측정도구’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할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측정도구’와 ‘행복 측정도구’의 회수된 150부 설문지를 공인타당도 검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영아,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2 연구도구

이 연구의 연구도구는 최종 선정된 29문항의 영아 행복감 척도와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영아의 사회·정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Infants, Teachers)

Variable		N	%	
Infant	Gender	Boys	123	49.2
		Girls	127	50.8
	Months	25~35	164	65.6
36		86	34.4	
	Age	20'S	77	30.8
		30'S	78	31.2
		40+	95	38.0
Teacher	Total career	Less than 1 year	39	15.6
		1~3 years	36	14.4
		4~6 years	112	44.8
		More than 7 years	63	25.2
Infant classroom career		Less than 1 year	43	17.2
		1~3 years	67	26.8
		4~6 years	140	56.0
Academic background		Child care teacher education graduation	25	10.0
		Graduated from a 2, 3-year college	175	70.0
		More than a 4-year university graduation	50	20.0
Agency type		Home day care	68	27.2
		Day care center	175	72.8

적 긍정행동 측정도구와 이은주[9]가 개발한 행복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존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비교하여야 하나 현재까지는 영아 행복 측정도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때문에 이 연구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영아 행복의 구성요인으로 행복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측정도구와 영아와 발달단계의 연결선상에 있는 유아 행복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2.2.2.1 영아 행복감 척도

이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 행복감 척도는 연구자가 직접 문헌고찰 및 선행 측정도구 분석,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과정을 거쳐 추출된 구성요인을 토대로 1차 예비문항을 구성하였으며, 5차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도구로써, 25~36개월 영아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도구의 문항은 8개 요인 29문항(문제행동 4, 몰입을 통한 성취 4, 친구와의 관계 4, 교사와의 관계 4, 물리적 환경 3, 긍정정서 4, 부정정서 3, 건강 3)으로 구성되어있다. 검사 형식은 교사의 영아 관찰을 토대로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2.2.2.2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 행복 측정도구의 공인타당

도 검증을 위해 긍정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과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Infant Toddler Socio-Emotional Assessment (ITSEA:[18]을 신지연[19]이 변안·수정하여 사용한 82 문항 중 안문실[20]이 발췌한 3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측정대상은 12~36개월 영아이며, 측정방법은 보육교사가 한 달의 영아 행동을 근거로 행동의 빈도와 정도를 Likert식 4점 평정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신뢰도)은 순정(.89), 주의집중(.82), 모방놀이(.83), 동기(.75), 감정이입(.88), 친사회적 또래관계(.84)이며, 전체 신뢰도는 .97 이다.

2.2.2.3 행복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 행복 측정도구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영아와 발달단계의 연결선상에 있는 유아 행복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은주[9]가 개발한 행복 측정도구는 몰입 4문항, 건강 4문항, 영성 5문항, 또래관계 4문항, 교사관계 5문항, 인지 및 성취 5문항, 정서 4문항, 부모관계 5문항, 생활만족 2문항의 9개요인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도구의 문항은 유아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영아의 수준에 맞추어 3명의 유아교육 이론전문가들과 2차례 문항 협

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기존 문항의 의미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항을 수정·보완(문맥 혹은 단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교사의 유아 관찰을 토대로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행복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신뢰도)은 몰입(.87), 건강(.82), 영성(.86)또래관계(.89), 교사관계(.87), 인지 및 성취(.87), 정서(.84), 부모관계(.75), 생활만족(.84)이며, 전체 신뢰도는 .89 이다.

2.2.3 연구절차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 행복감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2017년 9월 18일~10월 13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할 어린이집의 표집은 원장과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집된 곳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해 설문지를 전달하고 교사와의 사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이 연구의 목적 및 취지와 설문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설문지의 회수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2.2.4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지는 총 261부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50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영아 행복감 척도의 타당화 검증을 위해 Amos 22.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최대우도법을 활용해 측정척도의 모수치를 추정함으로써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영아 행복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 값을 산출하였다. 넷째, 영아 행복 측정도구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값을 산출하였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영아와 교사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와 8개 종속변수(문제행동, 몰입을 통한 성취,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물리적 환경, 긍정정서, 부정정서, 건강) 간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1.0으로 독립표본 t-test와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영아 행복 측정도구의 일반화를 위해 관련성 있는 척도(긍정행동과 행복측정도구)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공인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일곱째, 영아 행복 측정도구의 구성요인 간 신뢰도 확인을 위해 요인 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영아 행복감 척도 29문항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영아 행복감 척도의 적합도는 $2(349)=767.09$, CFI=.89, TLI=.88, IFI=.90, RMR=.05, RMSEA=.06으로 나타나 영아 행복감 척도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문항분석을 위해 29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29개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가 5점 척도에서 1.83-4.48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문제행동과 부정정서 요인의 평균점수는 3점 이하로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3점(보통)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영아 행복감 척도는 보통이다(3점)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편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60-1.31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Table 2]와 같다.

영아 행복감 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들이 서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이에 영아 행복감 구성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아 행복감 척도 구성요인 간 상관관계는 .03-.57의 수치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물리적 환경과 문제행동, 몰입을 통한 성취,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건강요인 간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며, 그 외 모든 요인들 간에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각 영역은 중복적이지 않으며 어느 정도 독립적임이 나타났다. 각 요인별 상관계수는 [Table 3]과 같다.

3.2 구인타당도 검증결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 행복감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척도의 모수치 추정 및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척도의 모수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한 결과,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은 .49-.93의 범위로 모든 측정변수들의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어 수렴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은 ± 1.96 보다 크게 나타나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으므로 모든 측정문항이 요인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Table 4]와 같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Figure 1과 같다.

Table 2.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items of the infantile happiness scale

Division	Contents	M	SD
Problem behavior(4)	The infant is in a terrible rage if he/she doesn't have his own way.	2.85	1.31
	The infant is restless and distracted.	2.52	1.21
	The infant often breaks things up.	2.11	1.06
	The infant expresses their feelings in negative ways, such as spitting or biting.	1.83	1.09
Achievement through Immersion(4)	The infant concentrates well while playing his/her favorite game.	3.93	.7
	The infant tries to finish what he/she started.	3.58	.92
	The infant tries to solve the problem.	3.56	.90
Relationship with friends(4)	The infant tries to do his/her own thing.	3.69	.89
	The infant enjoys playing with his/her friends.	3.95	.71
	The infant is popular with his/her friends.	3.68	.84
Relationship with teachers(4)	The infant smiles at his/her friends often.	4.00	.73
	The infant has interest in his/her friends.	4.07	.64
	The infant closes with teachers.	4.16	.62
Physical environment(3)	The infant prefers to talk to teachers.	4.08	.74
	The infant is praised by teachers.	4.08	.75
	The infant likes playing with teachers.	4.13	.67
Positive emotion(4)	The toys for are provid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infants.	4.19	.79
	The plenty of safe paly facilities are in the playground.	4.33	.76
	The infant living space(classroom, toilet, auditorium, etc.) is always kept safe and pleasant.	4.48	.60
Negative emotion(3)	The infant is always active.	4.01	.80
	The infant is always comfortable.	3.97	.72
	The infant always feels good.	3.95	.73
Health(3)	The infant is always happy.	3.96	.77
	The infant often feels embarrassed.	1.90	.85
	The infant is always afraid.	1.84	.86
Relationship with friends(4)	The infant often gets upset.	2.27	.91
	The infant isn't picky about food.	3.27	1.20
	The infant enjoys foods.	3.72	1.02
Relationship with teachers(4)	The infant sleeps regularly and takes a nap well.	4.02	.98

Table 3. An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constituent factors of infant happiness scale

Division	Problem behavior	Achievement through Immersion	Relationship with friends	Relationship with teachers	Physical environment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Health
Problem behavior	1.00							
Achievement through Immersion	-.26 **	1.00						
Relationship with friends	-.31 **	.38 **	1.00					
Relationship with teachers	-.38 **	.44 **	.46 **	1.00				
Physical environment	-.10	.08	.11	.08	1.00			
Positive emotion	-.24 **	.32 **	.57 **	.46 **	.15 *	1.00		
Negative emotion	.43 **	-.21 **	-.34 **	-.23 **	-.15 *	-.42 **	1.00	
Health	-.24 **	.24 **	.34 **	.33 **	.03	.34 **	-.19 **	1.00

* $p < .05$. ** $p < .01$.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of the infant happiness scale

Division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S.E.	C.R.
Number	Factor				
4	↔ Problem behavior	1.00	.69	-	-
3	↔ Problem behavior	1.15	.82	.09	11.5***
2	↔ Problem behavior	1.33	.83	.11	11.7***
1	↔ Problem behavior	1.38	.79	.12	11.2***
8	↔ Achievement through Immersion	1.00	.74	-	-
7	↔ Achievement through Immersion	1.09	.80	.09	11.54***
6	↔ Achievement through Immersion	1.05	.76	.09	11.07***
5	↔ Achievement through Immersion	.65	.61	.07	8.97***
10	↔ Relationship with friends	1.03	.75	.07	13.68***
12	↔ Relationship with friends	.83	.80	.05	15.08***
11	↔ Relationship with friends	.98	.82	.06	15.74***
9	↔ Relationship with friends	1.00	.86	-	-
13	↔ Relationship with teachers	1.00	.75	-	-
14	↔ Relationship with teachers	1.36	.85	.10	13.38***
15	↔ Relationship with teachers	1.31	.81	.10	12.76***
16	↔ Relationship with teachers	1.05	.73	.09	11.50***
17	↔ Physical environment	1.00	.91	-	-
18	↔ Physical environment	1.01	.96	.05	18.70***
19	↔ Physical environment	.50	.60	.04	10.94***
21	↔ Positive emotion	1.00	.81	.08	12.54***
22	↔ Positive emotion	1.09	.87	.08	13.50***
23	↔ Positive emotion	1.18	.90	.08	13.83***
20	↔ Positive emotion	1.00	.72	-	-
26	↔ Negative emotion	1.00	.53	-	-
25	↔ Negative emotion	1.63	.93	.19	8.19***
24	↔ Negative emotion	1.30	.75	.15	8.23***
29	↔ Health	.57	.49	.08	6.63***
27	↔ Health	1.08	.74	.12	8.41***
28	↔ Health	1.00	.81	-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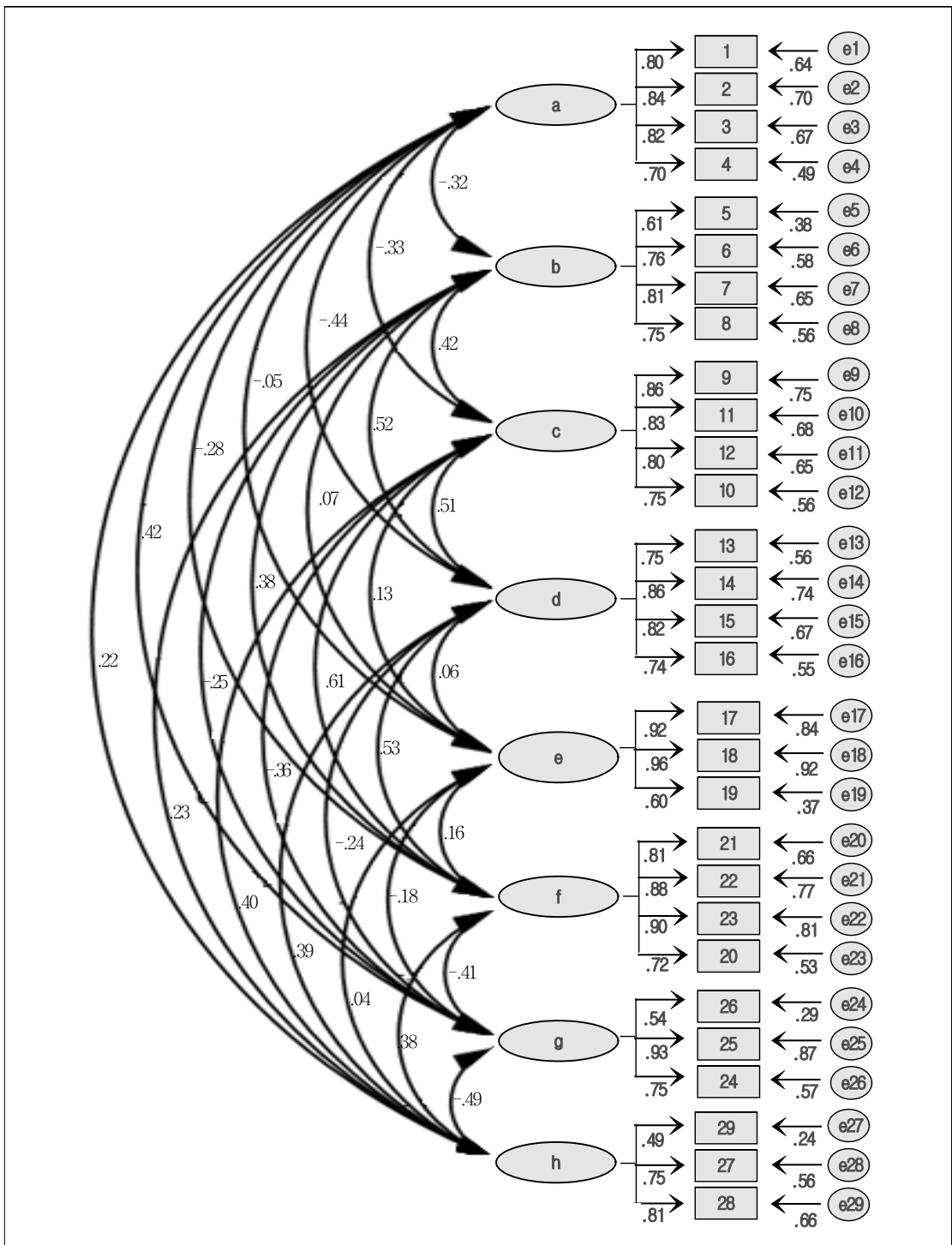


Fig. 1. A structural model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infant happiness scale.

다음으로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해 개념신뢰도 값을 이용하였다. 8개 구성요인의 구성개념신뢰도 값(집중타당도)은 문제행동 .82, 몰입을 통한 성취 .86, 친구와의 관계 .93, 교사와의 관계 .93, 물리적 환경 .94, 긍정정서 .93, 부정정서 .83, 건강 .70으로 모든 수치가 .7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21]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평균분산추출(AVE)값을 이용하였다. 8개 구성요인의 AVE값은 문제행동 .55, 몰입을 통한 성취 .62, 친구와의 관계 .77, 교사와의 관계 .78, 물리적 환경 .84, 긍정정서 .79, 부정정서 .63, 건강 .45로 나타났다.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들의 AVE값이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 보다 커야 한다. 이에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각 구성요인들 간의 제곱값 중 가장 큰 값은 친구와의 관계와 긍정정서 간의 상관계수 값인 .57이다. 이것의 제곱값이 .32이므로, 모든 변수들의 AVE값이 .32보다 커야 한다[22]. 모든 요인의 AVE값이 .32보다 높아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Table 5]와 같다.

3.3 공인타당도 검증결과

3.3.1 영아 행복감 척도와 영아 긍정행동 척도의 상관관계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척도와 영아 긍정행동 척도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영아 행복감 척도에서 문제행동은 긍정요인과 -.52--.33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을 통한 성취도 긍정요인과 .33-.56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 역시 긍정요인과 .47-.57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와의 관계는 긍정요인과 .39-.45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의 경우에는 긍정요인 중 순중, 동기, 친사회적 또래관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과 .17-.23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정서는 긍정요인과 .30-.50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정서 역시 긍정요인과 -.47--.32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강

은 긍정요인과 .36-.42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Table 6]과 같다.

3.3.2 영아 행복감 척도와 영아 긍정행동 척도의 상관관계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측정도구와 행복 측정도구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영아 행복감 척도의 문제행동은 행복 측정요인의 몰입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 -.47--.16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몰입을 통한 성취는 행복 측정요인과 .48-.72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 역시 행복측정요인과 .36-.71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 또한 행복측정요인과 .21-.63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은 행복 측정요인 중 몰입, 또래관계, 인지성취, 정서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과 .16-.28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정서는 행복 측정요인과 .16-.48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정서 역시 행복 측정요인과 -.49--.23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행복 측정요인 중 인지성취, 부모관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과 .21-.42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Table 7]과 같다.

3.4 신뢰도 검증결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최종 선정된 문항들에 대한 내적 일치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계수를 살펴보면, 문제행동은 .86으로 나타났고, 몰입을 통한 성취 .82, 친구와의 관계 .87, 교사와의 관계 .86, 물리적 환경 .86, 긍정정서 .89, 부정정서 .76, 마지막으로 건강 .71의 신뢰수준을 보여 영아 행복감 척도의 모든 하위영역별 신뢰수준은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Table 8]과 같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result

Division	Problem behavior	Achievement through Immersion	Relationship with friends	Relationship with teachers	Physical environment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Health
Problem behavior	1.00							
Achievement through Immersion	-.26 **	1.00						
Relationship with friends	-.31 **	.38 **	1.00					
Relationship with teachers	-.38 **	.44 **	.46 **	1.00				
Physical environment	-.10	.08	.11	.08	1.00			
Positive emotion	-.24 **	.32 **	.57 **	.46 **	.15 *	1.00		
Negative emotion	.43 **	-.21 **	-.34 **	-.23 **	-.15 *	-.42 **	1.00	
Health	-.24 **	.24 **	.34 **	.33 **	.03	.34 **	-.19 **	1.00

* $p < .05$, ** $p < .01$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infant happiness scale and infant affirmative action scale

Division	Obey	Attention	Imitation play	Motivation	Empathy	Prosocial peer relationship
Problem behavior	-.48 **	-.39 **	-.33 **	-.39 **	-.50 **	-.52 **
Achievement through Immersion	.39 **	.50 **	.55 **	.52 **	.56 **	.33 **
Relationship with friends	.47 **	.49 **	.57 **	.56 **	.55 **	.60 **
Relationship with teachers	.44 **	.39 **	.43 **	.45 **	.45 **	.42 **
Physical environment	.12	.17 *	.19 *	.08	.23 **	.14
Positive emotion	.30 **	.42 **	.50 **	.43 **	.42 **	.46 **
Negative emotion	-.32 **	-.43 **	-.37 **	-.40 **	-.41 **	-.47 **
Health	.40 **	.42 **	.38 **	.36 **	.41 **	.40 **

* $p < .05$. ** $p < .01$.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infantile happiness scale and the happiness measurement tool

Division	Immersion	Health	Spirituality	Peer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Cognition and Achievement	Emotion	Parent relationship	Life satisfaction
Problem behavior	-.12	-.47 **	-.31 **	-.39 **	-.44 **	-.21 **	-.47 **	-.16 *	-.44 **
Achievement through Immersion	.72 **	.47 **	.72 **	.48 **	.48 **	.60 **	.58 **	.50 **	.53 **
Relationship with friends	.40 **	.51 **	.42 **	.71 **	.60 **	.36 **	.49 **	.42 **	.63 **
Relationship with teachers	.35 **	.46 **	.38 **	.39 **	.63 **	.21 *	.37 **	.31 **	.50 **
Physical environment	.13	.21 **	.16 *	.09	.25 **	.09	.15	.25 **	.28 **
Positive emotion	.32 **	.37 **	.37 **	.45 **	.41 **	.16 *	.45 **	.27 **	.48 **
Negative emotion	-.23 **	-.47 **	-.26 **	-.43 **	-.33 **	-.23 **	-.44 **	-.23 **	-.49 **
Health	.21 **	.41 **	.24 **	.31 **	.42 **	.14	.36 **	.09	.33 **

* $p < .05$. ** $p < .01$.

Table 8. Results of the item reliability test for the infantile happiness scale

Divis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Problem behavior (4)	.86
Achievement through Immersion (4)	.82
Relationship with friends (4)	.87
Relationship with teachers (4)	.86
Physical environment (3)	.86
Positive emotion (4)	.89
Negative emotion (3)	.76
Health (3)	.71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4.1.1 영아 행복감 척도의 구성요인

이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몰입을 통한 성취,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물리적 환경, 긍정정서, 부정정서, 건강의 8개 영아 행복감 구성요인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구성요인은 보건복지부[36]에서 제시한 영아기 발달 영역인 건강·언어·인지·사회·정서·물리적 환경 영역 안에 8개 구성요인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선정한 8개의 행복감 구성요인이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유아 행복감 척도에 비해 영아의 행복감을 전인적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8개의 영아 행복감 구성요인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검토해보면, 먼저 문제행동 요인은 행복의 구성요인에서 부정적인 정서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33, 3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며, 몰입을 통한 성취는 [9, 27, 33]의 연구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는 몰입(주의집중, 집중의 지속), 인지 및 성취(인지적 특성, 적응성, 주도성, 문제해결), 안정성 하위영역별 행복감(성취)과 맥락을 같이함으로써 이 연구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친구와의 관계는 [9, 27, 33, 35]의 연구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는 또래관계(또래로부터의 지지), 관계(또래관계), 안정성 하위영역별 행복감(사회적 관계)과 맥락을 같이하며, 교사와의 관계는 [9, 27, 33, 35]의 연구에서 제시한 교사관계(교사로부터의 지지), 관계(교사관계), 안정성 하위영역별 행복감(사회적 관계)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은 김도란[14]의 연구에서 제시한 가정환경과 비슷한 맥락으로써, 두 연구는 가정과 보육시설환경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아이를 둘러싼 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행복감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다. 긍정정서는 [9, 33-35]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서요인, 놀이활동 참여의 하위요인 정서, 정서(긍정정서)와 맥락을 같이 하며, 부정정서 요인은 [33-34]의 연구에서 제시한 부정적 정서요인과 맥락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9, 27, 33, 35]의 연구에서 각각 제시한 건강(건강·영양·위생생활, 안전생활), 놀이참여 활동(건강), 신체건강, 정신건강 요인, 안정성 하위영역별 행복감(건강)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8개의 구성요인이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지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2 영아 행복감 척도의 타당도

영아 행복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250개의 설문결과를 이용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 최종 29문항의 영아 행복감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영아 행복감 측정에 있어 적절한 문항수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행동과 몰입을 통한 성취,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긍정정서는 각각 4문항, 물리적 환경과 부정정서, 건강은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개발 연구의 개발 문항 수에 대해 [37-38]은 그 수가 많을 경우 설문의 과정이 성의껏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문항수가 많다고 측정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29문항은 영아 행복감 측정에 있어 신뢰도를 높이는데 타당한 문항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 행복감 척도는 구인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아 행복감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여 측정 척도의 모수치를 추정하여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S.E.), 검정통계량(C.R.), 설명력(SMC), 측정변수의 오차항을 구하였다. 검정통계량은 ± 1.96 보다 크며 $p < .001$ 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든 척도의 문항이 요인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은 .49-.93의 범위를 보여 수렴타당도 또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상관계수(SMC) 역시 .24이상의 설명력을 보였다. 때문에 영아 행복감 척도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조사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집중타당성 평가를 위해 각 요인의 개념신뢰도 값을 구한 결과, 70-.94의 분포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이용하였으며, 각 변수의 AVE 값 중 가장 큰 값인 친구와의 관계와 긍정정서 간의 상관계수 값을 제공한 값이 .32이므로, 각 변수의 값이 .32보다 높아 영아 행복감 척도가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 행복감 척도의 각 문항은 구성요인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성요인의 하위 문항은 서로 비슷한 개념을 검증하고 있고, 각 구성요인들은 다른 구성요인과는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 척도의 구인타당성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 행복감 척도는 공인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아 행복감 척도와 긍정행동변수와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8개 구성요인은 긍정행동 변수 모두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아 행복감 척도와 행복 척도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문제 행동, 물입을 통한 성취,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물리적 환경,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7개 변수는 행복 측정변수 모두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아 행복감 척도 건강 변수와 행복 측정변수 중 인지성취와 부모관계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 행복감 척도가 공인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 행복감 척도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아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최종 선정된 문항들

의 내적일치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각 구성요인별 신뢰도가 .71-.89의 분포를 보였다. 신뢰도의 수치와 관련한 연구에서 송지준[39]은 Cronbach α 값이 .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 행복감 척도의 문항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4.2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8개 영아 행복감 구성요인과 구성요인별 문항들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검사 도구이므로 25~36개월 영아의 행복감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척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 행복감 척도는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첫 번째 척도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영아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있어 그 효과를 검증해 주는 주요 검사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보육현장에서 영아 행복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 행복감 척도를 활용해 영아기 행복감과 유아기 행복감의 변화과정과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종단 연구가 이루어져 영아기 행복감이 유아기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 행복감 척도는 교사의 관찰과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크리스트 형식이다. 따라서 검사과정에서 교사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영아를 바라보는 노력을 통해 보다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World Happiness Report 2017*.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7.
- [2] Seligman, M. E. P. *Authentic happiness*. Gyeonggi:물푸레, 2014.
- [3] Diener, E., & Biswas-Diener, R. *Happiness: Unlocking the mysteries of psychological wealth*. Gyeonggi: 21 Century Book, 2011.
- [4] Kim BN. *The whole brain approach*. Seoul: Kukminpub, 2012.
- [5] Lee KM. Ideas for implementing pursuit of happiness

-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8(1), 165-181, 2009.
- [6] Choi KA. Comparative Study on Educational Teleologisms: Centered around Success and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Idea*, 21(3), 201-235, 2007.
- [7] Lyubomirsky, S.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in well being. *American Psychologist*, 56(3), 239-249, 2001.
- [8] Ahn GS. The Implica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Children's happiness based on Research in Brai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Education*, 80, 1-17, 2013.
- [9] Lee EJ.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Happiness Scale for Young Children: Based 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Dep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0.
- [10] Seligman, M. E. P., Ernst, R. M., Gillham, J., Reivich, K., & Linkins, M. Positive education: Positive psychology and classroom intervention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5(3), 293-311, 2009.
- [11] Wittmer, D. S., & Petersen, S. H.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and Responsive Program Planning: A Relationship-Based Approach*. Seoul: Hakjisa, 2011.
- [12] Jeong O. *infant development*. Seoul: Hakjisa, 2008.
- [13] Kim GY. A study on the infant teachers' perception and demand of the infant's happiness and the happiness enhancement activ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 [14] Kim DR.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appiness of Young Children and that of Their Par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15] Park SH. The Influences of Maternal Rearing Attitude on Childhood Peer Relationship and Happiness.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 [16] Chung KS., Yoo MS., Cha JR. How mothers' orientation towards happiness influences their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4), 25-46, 2012.
- [17] Choi EA. The Process of Meaning Construction on Children's Happiness by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4.
- [18] Briggs-Gowan, M. J., Carter, A. S., Jones, S. M., & Little, T. D. The infant-toddler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 (ITSEA):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5), 459-514, 2001.
- [19] Shin JY. Multiple Attachments to Mothers and Child Care Providers of 2-year-olds an Socio-Emotional Behaviors.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20] An M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Socio-emotional Behavior and Teacher's Interac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21] Hair, J. F. J.,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1998.
- [22] Fornell, C., &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February), 39-50, 1981.
- [23] Go H., Kim SM. The Relations amo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indergarten Adaptation and Happines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4), 115-136, 2014.
- [24] Park MJ., Kim MJ.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er Competence, Self-esteem,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Happiness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1), 217-240, 2016.
- [25] Park Y., Yang JH. Mothers' and teachers' perceptions on young children's kindergarten adjustment, problem behavior and happiness according to children's peer popularit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6), 73-103, 2012.
- [26] Lee MN.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Happiness and Young Children's Leadership. *Korean Society for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18(4), 151-167, 2014.
- [27] Jeon GE. The Effect of Temperament and Perceived of Social Support on Preschooler's Happines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Graduated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28] Jeon HJ., Kim OY., Ryu MH., Goh EK.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factor, temperament, unbalanced diet of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young children's happiness.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4(4), 181-202, 2015.
- [29] Choi NR. The effect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on their happines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ill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30] Choe S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happiness and its variables: Temperament, Parenting Efficacy and Ego-resilienc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5.
- [31] Ha S. Differences in Happiness Depending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Competence.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32] Han J.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and Feelings of Happiness in Preschool Teachers: The Mediating Effects of Adaptive Resiliency and Stress-coping Strategy.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15.
- [33] Seo HR.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s-Assessment Scale for Happiness of Young Children. Dept. of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Dong-Eu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34] Lee S. The Effects of Parent-Child Play and Private Education on Children's Happines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5.

- [35] Lee H. The Effects of Family System-oriented Environment and Mother's Rearing Behaviors on Preschooler's Happiness.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36] Ministry of Health & Welfare. Understanding the operation of an infant care program (based on the daycare standard childcare course). Seoul:Kyungsungmedia, 2013.
- [37] Kim Y.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Rating Scale for Early Childhood.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5.
- [38] Kim Y., Yu H., Namgung J. *Development of Educational Satisfaction Survey Tool*. Seoul: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4.
- [39] Song J. *(Necessary for writing a thesis)SPSS / AMO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Gyeonggi-do:21 Century Book 2016.

민 선 희(Sun-Hee Min)

[정회원]



- 2015년 2월 :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
- 2016년 9월 ~ 2017년 12월 :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시간강사
- 2018년 2월 :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
- 2018년 9월 ~ 2018년 12월 :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유아교육

김 용 숙(Young-Sook Kim)

[종신회원]



- 1993년 2월 : 전남대학교 유아교육 석사
- 2001년 2월 : 한남대학교 교육학 박사
- 2018년 3월 ~ 현재 한국 보육 교육학회 이사
- 2002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